

BOK 이슈노트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
Tel. 02-759-4434
samil_oh@bok.or.kr

황수빈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Tel. 02-759-4187
soobin_hwang@bok.or.kr

유민정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조사역
Tel. 02-759-4426
mjyoo@bok.or.kr

이종하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조사역
Tel. 02-759-4154
jh.lee@bok.or.kr

2021년 6월 8일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취업자수 회복 경로는 종사상지위별로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 임시일용직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용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자영업 고용부진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고용현황을 특성별로 살펴보고, 자영업 고용부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산업별로 보면 전체 자영업자 중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48%(2020년 기준)에 달하며,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운수창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및 배달수요가 늘면서 큰 폭 증가하였다.

고용원 유무별로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미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한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다. 이는 경기충격이 클수록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편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30대 및 40·50대에서 자영업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는 인구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영업자 감소를 유출입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감소는 유출(outflow) 증가뿐 아니라 유입(inflow) 감소에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8월중 자영업자 유출은 과거 3개년 평균 대비 5.0만명 증가하였으며 유입은 4.5만명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화 확산은 대면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고용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디지털화 확산, 플랫폼 경제의 부상 등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기에 비자발적으로 진입(push factor)하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조사국 이동렬 고용분석팀장과 유익한 논평을 주신 조사국 김승원 부장, 이지호 부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남아있는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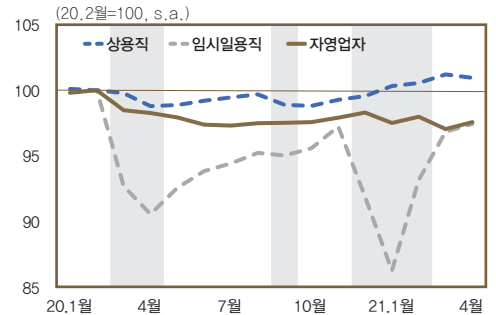
한국은행

I. 검토배경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취업자수 회복 경로는 종사상지위별로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경로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임시일용직은 방역대책이 완화되면서 금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용직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반면 자영업자는 임시일용직에 비해 고용충격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의 전반적인 고용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임시일용직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및 퇴출에 따른 비용이 커서 고용조정이 경직적이고 지속성이 높은 데 기인한다(〈표 1〉 참조).

향후 백신보급 확대,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업은 당분간 고용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고용상황이 향후 고용회복 경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¹⁾ 이에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고용현황을 특성별로 살펴보고, 자영업 고용부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그림 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¹⁾



주: 1) 음영은 코로나19 확산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¹⁾의 변동성 및 지속성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변동성(표준편차, %)	0.54	1.66	0.81
지속성(AR(1) 계수)	0.79	0.57	0.82

주: 1) 시계열(10.1월~21.4월)을 로그변환후 HP필터를 통해 추세 제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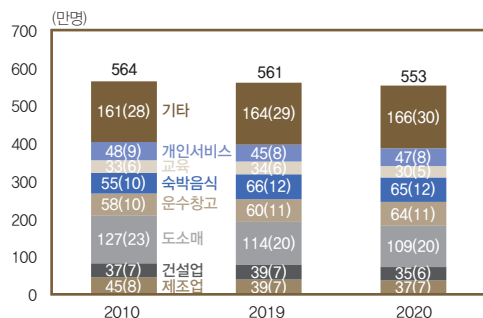
1. 산업별

전체 자영업자 중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²⁾ 종사자의 비중은 48% (2020년 기준)에 달하며,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2〉, 〈그림 3〉 참조). 반면 운수창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및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큰 폭 증가하였다.³⁾ 제조업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부터 이어진 감소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1) 우리나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은 24.6%로, 미국(6.1%), 일본(10.0%), 독일(9.6%), OECD 평균(16.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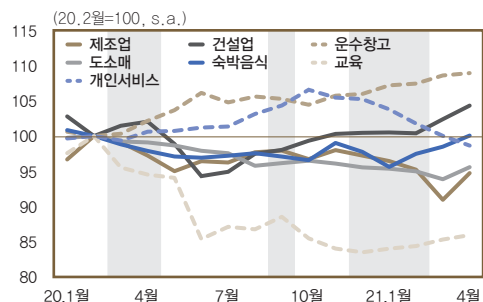
2) 여기서 대면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개인서비스를 의미한다.

3) 예를 들어, 지난해 쿠팡 고용원수(19.12월: 2.5만명 → 20.12월: 5.0만명) 및 배민커넥트 가입자수(19.12월: 1만명 → 20.12월: 5만명)가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한 형태로 자영업자에 포함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도 상당수(70% 이상)가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그림 2〉 산업별 자영업자 규모¹⁾

주: 1) 기타는 농업어업(16.6%, 2020년 기준) 포함, ()내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산업별 자영업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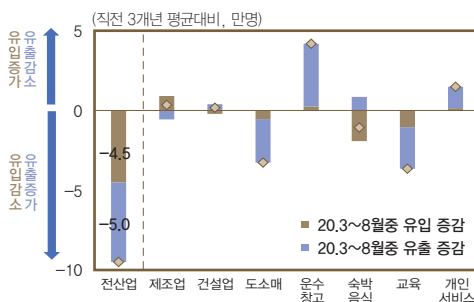
주: 1) 음영은 코로나19 확산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자 감소를 유출입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감소는 유출(outflow) 증가뿐 아니라 유입(inflow) 감소에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월 제공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의 신규창업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유출입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 2020년 3~8월중 자영업자 유출은 과거 3개년 평균 대비 5.0만명 증가하였으며 유입은 4.5만명 감소하였다(〈그림 4〉 참조).

산업별 유출입을 보면, 교육 및 도소매에서 유입이 줄고 유출도 크게 늘어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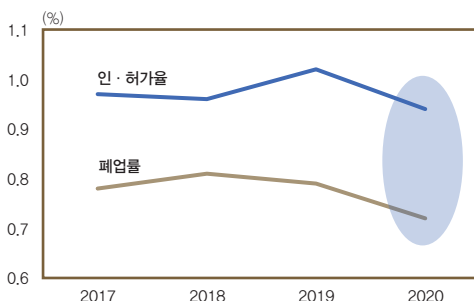
우 유입이 큰 폭 감소하였으나 유출도 줄어들면서 자영업자 감소를 일부 상쇄하였다. 이는 숙박음식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자금⁴⁾, 권리금 회수 어려움 등 폐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업의 유입 감소 및 유출 감소 현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숙박음식업의 인·허가율 및 폐업률은 2020년중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⁵⁾ 한편 운수창고는 유입이 늘어난 데다 유출도 크게 감소하면서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4〉 산업별 자영업자 유출입 증감폭¹⁾²⁾

주: 1) 17~19년(3~8월중) 평균대비 20년(3~8월중) 자영업자 유출입 증감

2) 표식은 20.3~8월중 순유입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그림 5〉 숙박음식업¹⁾ 인·허가율 및 폐업률

주: 1) 일반음식점 등 총 12개 업종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자료

4)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20.8월)에 따르면, 숙박음식의 평균 창업자금 규모는 72.2백만원으로, 제조업(34.6백만원), 건설업(20.0백만원), 서비스업(48.7백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5)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자료에서 숙박음식업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 등 12개의 업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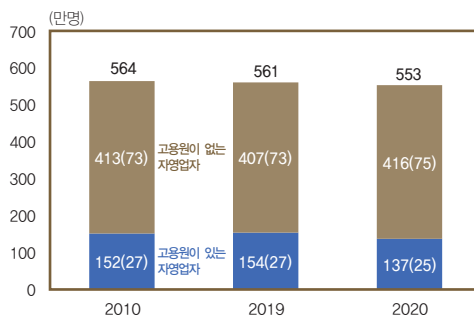
2.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는 유급 고용원 유무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된다(〈표 2〉 참조). 고용원 유무별로 자영업자의 비중을 보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경우가 75%(2020년 기준)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6〉 참조).

〈표 2〉 자영업자 구분

구분	정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그림 6〉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 규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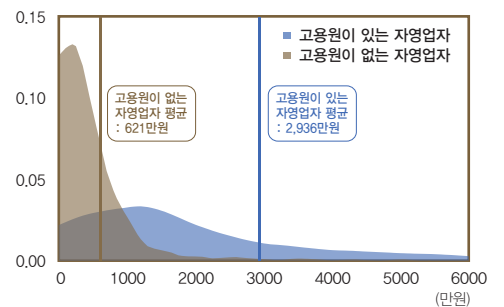


주: 1) () 내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매출액, 사업체의 주된 장소 측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그림 7〉, 〈그림 8〉 참조). 먼저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2,936만원)이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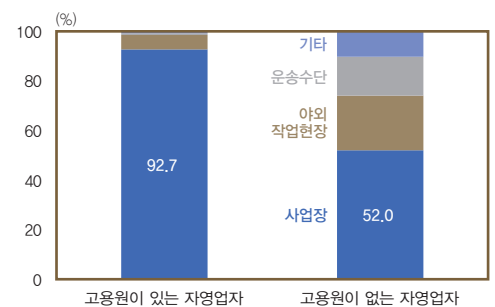
원이 없는 경우(621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월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89.1%)을 차지한다. 사업체의 주된 장소에 있어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92.7%)인데 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근무 비중이 절반 수준(52.0%)에 불과하다. 이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통적인 자영업 형태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가 최근 들어 증가한 데 기인한다.⁶⁾

〈그림 7〉 고용원 유무별 월평균 매출액 분포¹⁾



주: 1) 2019년 기준, 카널분포 추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그림 8〉 고용원 유무별 사업체 주된 장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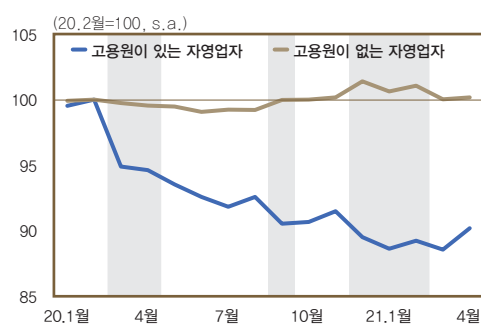


주: 1) 20.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를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는 이들중 대다수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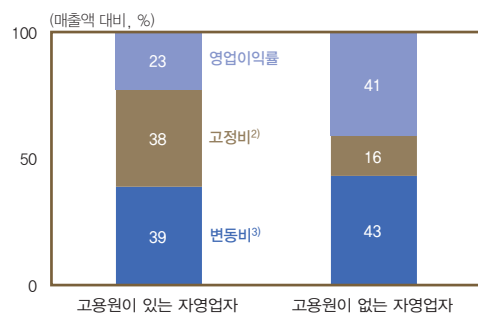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충격도 고용원 유무별로 크게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그림 9〉에서 보듯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미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이후 택배 및 배달수요 확대로 택배기사 및 플랫폼 배달라이더가 증가한 데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전(20.2월)에 비해 최대 11% 감소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불확실성이 큰 팬데믹 경기침체에 큰 충격을 받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0〉 참조).

〈그림 9〉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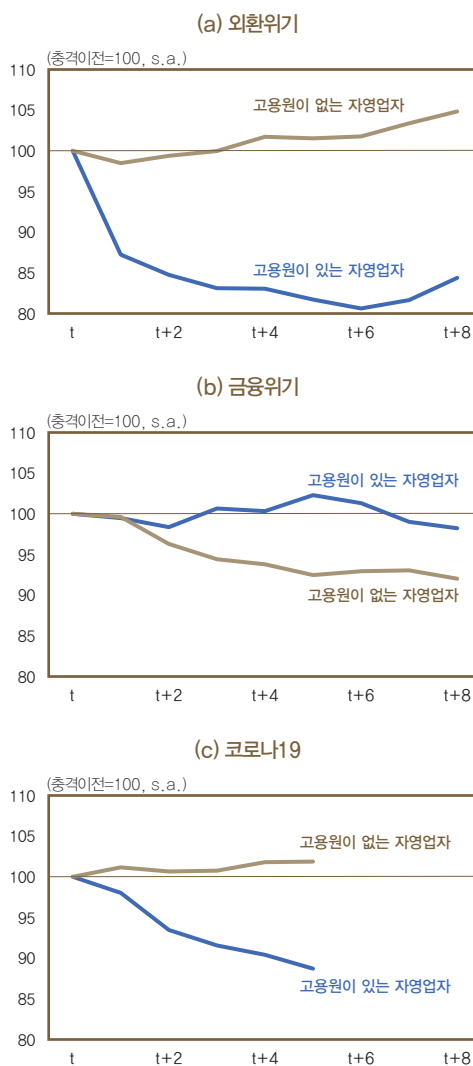
주: 1) 음영은 코로나19 확산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0〉 고용원 유무별 영업비용 및 영업이익률¹⁾



주: 1) 2019년 기준, 본인 인건비는 영업이익에 포함
2) 인건비, 임차료, 세금·수수료·기타비용 포함
3) 재료매입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그림 11〉 경기침체기별 고용원 유무 자영업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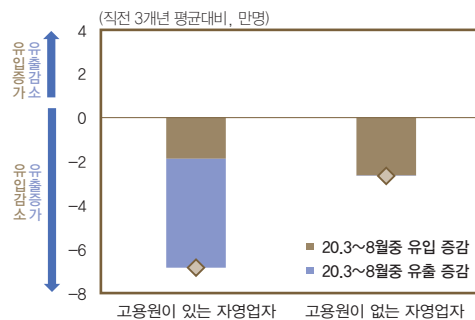
주: 1) 충격이전 시점은 외환위기 1997.4/4분기, 금융위기 2008.3/4분기, 코로나19 2019.4/4분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다(〈그림 11〉 참조). 이는 경기충격이 클수록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편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외환위기 및 코로나19 위기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경기침체에 실직자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나는 구축가설(push hypothesis)을 지지하는 패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금융위 기사에는 고용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아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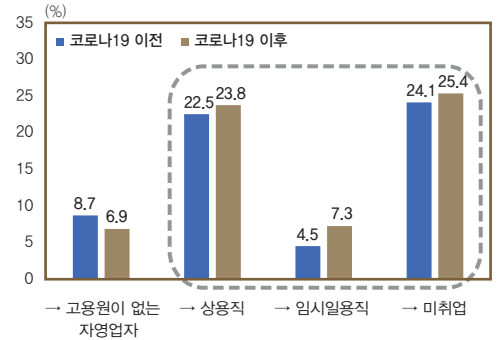
자영업자 유출입 측면에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주로 유입 감소보다 유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2〉 참조). 특히 유출된 자영업자가 종사상지위상 어떤 부문으로 이동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1년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상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 혹은 미취업(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으로 전환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용직(+1.3%p)보다 임시일용직(+2.8%p)으로 전환한 비중이 큰 폭 상승하였다. 다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한 비중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하락(-1.8%p)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참조). 이는 코로나 충격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해고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경우는 많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림 12〉 고용원 유무별 유출입 증감폭¹⁾²⁾



주: 1) 17~19년(3~8월중) 평균대비 20년(3~8월중) 자영업자 유출입 증감
2) 표식은 20.3~8월중 순유입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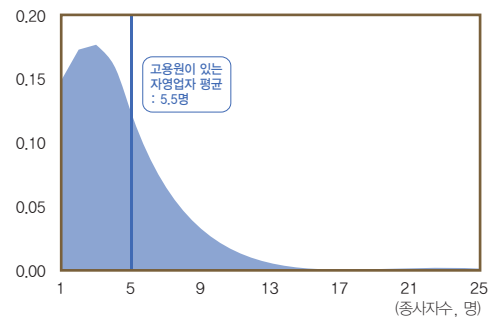
〈그림 1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상태 전환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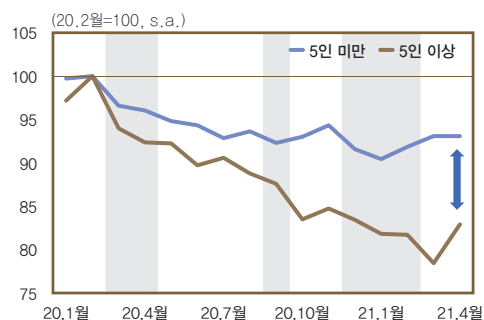
주: 1) 코로나 이전: 19.2월 → 20.2월 전환율
코로나 이후: 20.2월 → 21.2월 전환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체 추정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고용원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고용원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자 비중이 75%(2019년 기준)로 높은 수준이다(〈그림 14〉 참조). 한편 코로나19 이후 고용상황은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악화되었다(〈그림 15〉 참조). 고용원이 5인 미만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전(20.2월)에 비해 최대 10% 감소하였으나 고용원이 5인 이상인 자영업자는 최대 22%까지 감소하면서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고용원 수가 많을수록 고정비용 부담이 커 팬데믹 경기침체에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4〉 고용원수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분포¹⁾



주: 1) 2019년 기준, 커널보포 추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그림 15〉 고용원수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¹⁾

주: 1) 운영은 코로나19 확산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자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취업자의 고용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용원 규모가 클수록 고용부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다. 고용원이 5인 이상인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25% 정도에 불과하나, 자영업자에 고용된 취업자(임금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고용원 10인 미만 자영업자 관련 종사자의 40%에 해당한다(〈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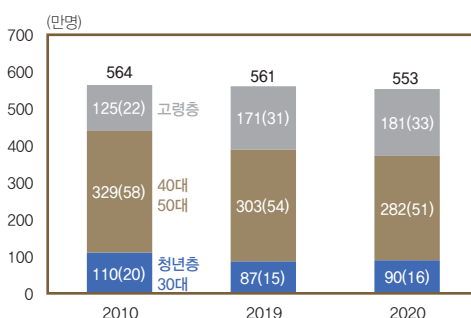
〈표 3〉 고용원수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된 취업자 비중

	고용원수 1~4인	고용원수 5~9인
자영업자 비중 ¹⁾	74.8	25.2
자영업자에 고용된 취업자 ²⁾ 비중	57.1	42.9
(자영업자 + 자영업자에 고용된 취업자) 비중	59.8	40.2

주: 1) 고용원 10인 미만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자영업자에 고용된 무급가족종사자 및 임금근로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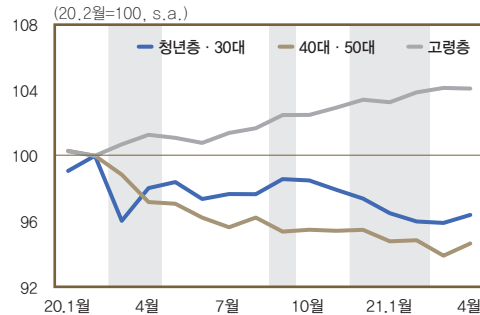
3. 연령별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40·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고령층(60대 이상)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16〉 참조).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도소매, 숙박음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30대는 교육(12.0%), 40·50대는 건설업(8.5%), 고령층은 운수창고(13.6%)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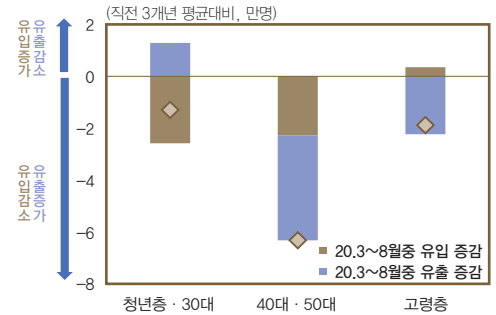
〈그림 16〉 연령별 자영업자 규모¹⁾

주: 1) ()내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코로나19 이후 연령별 자영업자 경로를 보면, 청년층·30대 및 40·50대 자영업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17〉 참조). 특히 40·50대 자영업자 감소폭은 인구요인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편이다. 40·50대 자영업자는 21.4월 기준 코로나 이전(20.2월) 대비 5.4% 감소하여, 인구(-0.6%) 및 취업자수(-1.5%) 감소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 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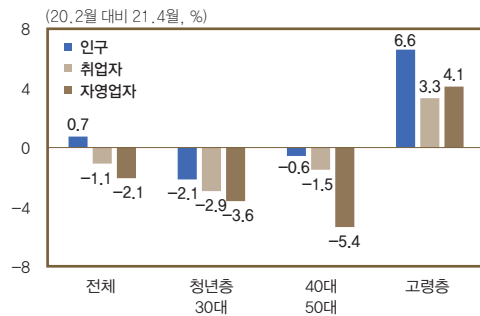
〈그림 17〉 연령별 자영업자¹⁾

주: 1) 음영은 코로나19 확산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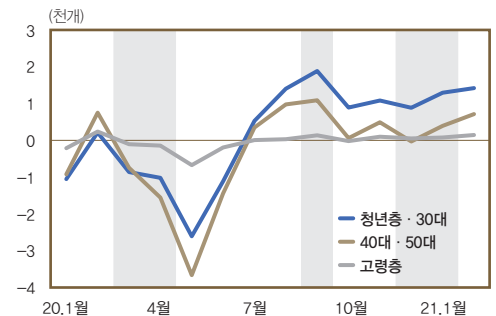
〈그림 19〉 연령별 자영업자 유출입 증감폭¹⁾²⁾

주: 1) 17~19년(3~8월중) 평균대비 20년(3~8월중) 자영업자 유출입 증감
2) 표식은 20.3~8월중 순유입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그림 18〉 연령별 인구 및 자영업 취업자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0〉 연령별 개인사업자 창업기업¹⁾ 변동²⁾

주: 1) 농림어업, 부동산업 제외 기준
2) 계절조정 계절을 HP필터를 통해 추세를 제거하여 순환변동치를 추출 (3개월 이동평균)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창업기업동향

연령별 자영업자 유출입 측면에서도, 40·50대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유입이 줄고 유출이 확대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19〉 참조). 한편 청년층·30대의 경우 유입 감소, 고령층은 유출 증가가 자영업자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⁷⁾ 청년층·30대 및 40·50대의 자영업자 유입 감소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해 3~5월중 해당 연령층에서 개인사업자 창업이 큰 폭 감소(유입 감소)한 사실과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20〉 참조).⁸⁾

Ⅲ. 종합평가

자영업자는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 넘게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는 교육,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는 택배 및 배달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고용원 유무별로는 고정비

7) 고령층은 유입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늘어난 은퇴연령층의 자영업 진입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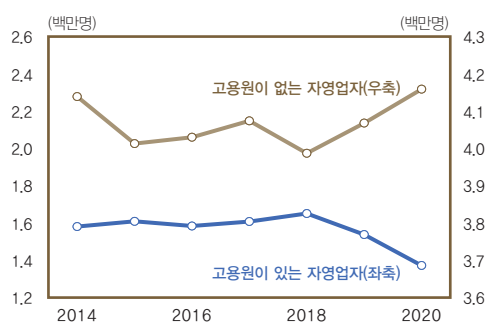
8)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사업자 DB를 가공하여 발표한 통계를 활용하였다. 다만 자영업자(통계청) 및 개인사업자 창업기업(중소기업벤처부) 통계 간 포괄범위 차이로 인해 유출입 추이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비중이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자영업자가 감소폭이 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화 확산은 대면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은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고용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고용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디지털화 확산, 플랫폼 경제의 부상 등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에 비자발적으로 진입(push factor)하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⁹⁾,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 종사상자위별 연간 소득은 다음과 같다.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연간 소득(만원)	3,686	1,714	6,299	3,05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2019년)

〈참고문헌〉

남윤미(2017), “국내 자영업의 폐업을 결정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2017-05

안정화(2017), “자영업 일자리와 실업률의 상호작용 분석”, 노동연구

오삼일 · 강달현(2019), “노동이동(worker flows)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2019년 6월호, pp.16-34

오삼일 · 이상아(2020),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BOK 이슈노트, No.
2020-09

송상윤(2021),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No. 2021-09

중소기업중앙회(2019),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2021-11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75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